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안전기준 조사 결과

탈취제 등 7개제품 유통금지

해당 업체 검찰에 고발...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2억이하 벌금 부과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된 신발 냄새 제거제 등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법)이 시행되면서 생활화학 제품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제품은 탈취제 3개 제품, 수입 세정제 3개 제품, 문신용 염료 1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지난 달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경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바이오피본(주)이 생산한 신발냄새 제거 스프레이 탈취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PHMG 사용금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주)필코스켄에서 제조한 탈취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제'에서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mg/kg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질법)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새롭게 마련된 TCE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유통된 것이다.

문신용 염료로는 미용닷컴에서 생산

한 'NANO Dark Brown(나노 다크 브라운)' 제품에 규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기준(물질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학법 제49조에 따르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인 자가검사번호 부정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박용주 기자



스타와 함께 이태원에서 9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석천이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에서 열린 "홍석천 세트와 함께하는 맛있는 캠핑"을 진행하며 호주 청정 우의 램을 활용한 캠핑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다.

6월 황금연휴 여행상품 '인기'

일본·홍콩·제주 예약 증가

6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월요일이 현충일(6월6일)인 관계로 주말 포함, 최대 3~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육선이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여행상품을 조사한 결과, 여행·항공권 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67% 판매가 늘었다. 타몬에서도 같은 기간 해외여행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황금연휴를 맞아 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6월 황금연휴가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인기가 높은 여행자는 어디인지를 관심이 모아진다. 소셜커머스 타몬이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여행상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스위스 오사카, 괌, 사이판, 미주 7대도시, 중국 등의 순으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여행상품과 같은 기간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판매수량 기준 TOP3 상품 조사 결과, 국내 여행은 어린이 대공원,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순으로 인기가 높게 나타났다. 해외여행에서는 대만, 일본(오사카), 홍콩 등의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여행상품과 같은 기간 인기여행지로 홍콩·마카오가 1위, 괌·사이판이 2위, 제주도가 3위를 차지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00%, 300%, 160% 판매가 상승했다. /인원수 기자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의견 수렴

전북개발공, 25일까지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난 18일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의견수렴하는 평가기준안은 2013년에 마련한 당초 평가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관련고시 기준 등의 상위규정 개정 등에 따른 후속절차다.

주요 골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감리용역'이라는 건설기술 제도가

어디인지를 관심이 모아진다.

소셜커머스 타몬이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여행상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스위스 오사카, 괌, 사이판, 미주 7대도시, 중국 등의 순으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여행상품과 같은 기간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판매수량 기준 TOP3 상품 조사 결과, 국내 여행은 어린이 대공원,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순으로 인기가 높게 나타났다. 해외여행에서는 대만, 일본(오사카), 홍콩 등의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여행상품과 같은 기간 인기여행지로 홍콩·마카오가 1위, 괌·사이판이 2위, 제주도가 3위를 차지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00%, 300%, 160% 판매가 상승했다.

이번에 의견수렴하는 평가기준안은 2013년에 마련한 당초 평가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관련고시 기준 등의 상위규정 개정 등에 따른 후속절차다.

주요 골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감리용역'이라는 건설기술 제도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바뀌었고, 참여기술자의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당분야 경력인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6월 중 홈페이지에 공고해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9월께 예정된 전주만성지구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정책자문위원 위촉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17일 전북테크노파크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정책자문위원에는 최재홍(디자인 클락 대표), 이의상(특허법인 두성 대표변리사), 한영국(대영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위촉된 정책자문위원은 총 10명이며 기존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최신 정보, 융복합 기술개발, 시장요구 등을 정확하게 진단해 중소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테크노파크 정책자문위원은 총 23명으로 로봇 드론, 3D프린팅, 바이오, 농기계 등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의 도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 도내 중소기업의 신사업 참여·신기술 도입 △ 업종관련 관련 자료 △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 지원 관련 등이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신규 정책자문위원의 위촉으로 인해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정책자문위원 확보를 통한 기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업무제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및 가입대행 업무를 망라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노란우산 공제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도내 및 수도권에 100여개 지점망을 갖춘 전북은행이 이번 노란우산공제 제를 취급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대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

임용택 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힘들어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안정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 수출역량보유기업 자금지원

군산, 익산, 부안, 고창지역의 1000불 이상 수출기업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출역량보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도내 군산, 익산, 부안, 고창 지역의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2015년 수출 실적액이 없고 2016년 수출 실적액이 1,000불 이상 달성한 수출기업이면 가능하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의 금융기관 연체가 없고, 세무체납이 없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3% 내외(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자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전북서부지부(063-460-9823)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전북서부지부 최규홍 지부장은 "전북서부지역의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정책자금을 강화해 도내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나들이 시즌 가능성 키즈 아웃도어 '유혹'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아지고 아이들의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가능성 키즈 아웃도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바림막이 제킷은 물론 위킹화와 피크닉 배낭을 비롯해 엄마·아빠와 매달리도록 연출할 수 있는 미니미 제품 등이 큰 인기를

라인을 비롯해 가방, 모자 등 다양한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네파 키즈는 가볍고 쾌적한 활동성이 돋보이는 프리치쿠 패커블 방풍 제킷을 출시했다. 작은 부피로 휴대할 수 있는 패커블(packable) 시스템을 적용해 접어서도 보관이 가능해 휴대성이 뛰어나다. /인원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